

유네스코 지정, 유일의 자연경관 3관왕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도전!

아름다운 섬 제주가 스위스에 있는 뉴세븐원더스(The New7wonders) 재단이 주관하는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에 도전한다. '세계 7대 자연경관'은 전 세계인들의 인터넷 투표와 전화 투표를 통해 전 세계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7곳을 선정하는 것으로, 현재 제주가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최종 28개 후보에 올라있다. 뉴세븐원더스는 이미 지난 2007년 '세계 新 7대 불가사의'를 선정해 전 세계에 생중계함으로써 이목을 집중시킨바 있다. 당시 투표 참가인원만도 1억 명. 7대 불가사의에 선정된 페루 마추피추와 요르단 페트라에 관광객이 1년만에 60~70% 급증했다. 인쇄인도 제주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지정될수 있도록 투표에 참여해 보는 것은 어떨까.



제주 7대 자연경관 후보 성산 일출봉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보고도 이어지고 있다. 세계적 마케팅 대가인 미국 켈로그 경영대학원 필립 코틀러 교수는 개리암스트롱 교수와 공동 집필한 <Marketing, An Introduction>에서 뉴세븐 원더스 재단의 2007년 세계 新 7대 불가사의 선정은 관광산업 신장에 기여하고 독특한 광고수단으로 성공한 사례이며, 전 세계적으로 50억달러 이상의 경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더욱이, 세계적 컨설팅사인 그랜트손튼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테이블마운틴이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될 경우 매년 2억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으며 관광업이 20% 신장되고, 일자리가 1만1000개 이상 창출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 아키노 대통령도 자국의 후보인 언더그라운드강이 7대 경관에 선정될 경우, 관광업이 40%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국민들에게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세계 7대 자연경관, 10억명 투표할 듯

오는 11월 11일까지 진행되는 세계 7대 자연경관에는 투표에는 총 10억명이 투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의 보물섬 제주를 세계인에게 알릴 수 있는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다.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제주 이미 국내 관광지의 명성을 넘어서다. UNESCO가 지정하는 자연과학분야 3관왕(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을 달성한 세계 유일의 섬이기 때문이다.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은 한라산국립공원과 해발 200m 이상 중산간지역, 그리고 서귀포시립해양공원(문섬, 범섬, 섣섬)이다. 한라산은 2000여 종의 식물과 5000여 종이 동물이 서식하고 있어 '살아있는 생태공원'으로 불리는데, 특히 정상부의 구상나무 숲은 세계 최대 규모이다. 전 세계에 생물권보전지역은 미국 로키산맥, 탄자니아 세렝게티 국립공원 등 109개국 총 564개소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설악산 등 7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2007년 세계자연유산 지정

제주도는 화산이 폭발해 생긴 섬으로, 경관적으로도 아름답지만 지질학적으로도 세계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땅 위에는 368개의 오름(소규모 화산을 뜻하는 제주어)이 펼쳐지고, 땅 아래에는 160여개의 용암동굴이 섬 전역에 흩어져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화산 특징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은 세계적으로도 희귀하다. 이를 인정해 유네스코는 2007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을 우리나라 최초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했다.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은 한라산과 성산일출봉, 그리고 거문오름용암동굴계(거문오름, 벵뒤굴, 만장굴, 김녕굴, 용천동굴, 당처물동굴)로 제주도 전체 면적의 약 10%를 차지한다.

투표 방법

- ◆ 문자 투표 : ☎ 001 -1588 - 7715 로 제주 또는 jeju, JEJU 전송(150원)
- ◆ 전화 투표 : ☎ 001 -1588 - 7715 연결 후 멘트에 따라 투표(180원)
- ◆ 인터넷 투표 : www.n7w.com {투표방법:제주도청 홈페이지 참조}
- ※ 문자·전화투표는 횟수에 관계없이 가능, 인터넷투표는 이메일 계정수만큼 가능.

이 가운데 거문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이 해안까지 흐르면서 다양하게 형성된 용암동굴은 최고의 백미. 용암동굴이면서도 화려한 석화생성물이 형성된 용천동굴과 당처물동굴은 세계적으로 매우 희귀하다. 전 세계에 있는 세계자연유산은 베트남 하롱베이, 호주 대보초 등 176곳이다.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

제주도 섬 전체가 2010년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다. 이 가운데 한라산, 성산일출봉, 만장굴, 천지연폭포, 서귀포 패류화석층, 산방산, 용머리해안, 수월봉, 대포동 주상절리대는 9개 대표명소로 그 가치가 뛰어나다.

한라산 백록담은 두 차례의 화산폭발로 형성되어 매우 희귀한 사례다. 바다에서 분출한 성산일출봉은 분화구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고, 해안 절벽에 다양한 퇴적구조를 갖추고 있어 수성(水成)화산 연구의 세계적 교과서라고 불리는 것 등이다. 현재 전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25개국 77개소가 있다.

세계 7대 자연경관 최종 후보 28곳

세계 7대 자연경관 최종 후보에 오른 곳은 총 28곳으로, 그랜드캐년, 하롱베이, 몰디브 같이 쟁쟁한 후보들이다.

제주도가 국제적 인지도가 낮지만 유네스코가 선정한 자연과학분야 3관왕을 달성한 유일한 지역이라는 점, 또한 섬, 화산, 폭포, 해변, 국립공원, 동굴, 숲 등 7대 자연경관의 분야별 테마를 모두 갖춘 곳은 제주밖에 없다. 무엇보다 인간과 자연, 그리고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자연경관 후보지는 제주가 유일하다.

제주도가 세계 7대 경관으로 선정된다면,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관광입국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 섬 전체가 세계 7대 경관 투표로 들쭉거리는 이유다.

문자 전화 인터넷 투표 모두 가능 ... 오는 11월 10일 마감

대한민국을 위해 투표하는 일, 그리 어렵지 않다. 하지만 그 이상의 가치 있는 일이다. 세계7대 자연경관 도전이 캠페인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 참여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다. ☞